

“솔라시도, 네옴시티 건주는 꿈의 도시로 조성”

김영록 지사, 서남권 활력 핵심과제 ‘솔라시도 발전 비전’ 제시

김영록 지사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된 솔라시도를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도시 ‘네옴시티’에 견주는 꿈의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라남도 기업도시 솔라시도 비전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

특히 솔라시도를 대통령 지방 공약 사업인 ‘광주-영암 아우토반’ (속도 무제한 초고속도로)과 연결해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서남해안 관광·레저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비전 발표식엔 병현관 해남군

수와 우승희 영암군수, 고형권 보성산업부 회장, 양택준 에이스투자(주) 회장, 정경오 목포도시가스(주) 대표이사 등 솔라시도 개발지구별 시행사 대표가 함께 했다.

김 지사가 밝힌 기업도시 솔라시도 개발은 전체 16개 사업에 8조8149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먼저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서비스와 혁신적인 정주 인프라를 갖춘 1조5000억원 규모의 미래형 선도도시인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마스다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견줄 수

있는 주거지가 일터인 ‘직주일체(職住一體)’의 꿈의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까지 구성지구에 260억원 규모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해 통합 플랫폼과 서비스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자율주행 실증단지·공유차 서비스 등 자율주행차 기반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솔라시도에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끌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방향을 제시했다.

1GW(기가와트)태양광발전 집적화 단지과 40만평 규모의 RE100(재생

에너지 100%)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허브터미널 구축’을 추진한다.

단지엔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파크’를 조성해 203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40MW(메가와트) 데이터센터 25기를 유치할 계획이다.

솔라시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8.2GW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전남은 RE100 실현이 가능한 국내외 첨단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남해안 관광·레저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한 ‘서남해안 광역관광 거점단지 조성계획’도 추진한다.

/김호 기자

광주 건축물 높이관리 원칙 운영 종료 도시경관·건축물 디자인 향상 추진 방안 일한

광주시는 2021년 7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광주시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의 운영을 종료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강기정 시장이 발표한 광주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추진 방안의 일환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상업지역 40층·주거지역 30층으로 최고높이를 제한했던 일률적인 건축물 높이 규제 운영을 종료하고 2040 광주시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맞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인 도시경관 관리,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 운영 종료는 공고일인 오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심의 과정에서 시민에게 양호한 도시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동시에 도시건축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병행, 도시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최원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2040 광주시 도시경관계획 수립 시기와 맞춰 최고높이를 규제하던 높이 제한을 해제하고, 나아가 도시경관과 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이 적기에 이뤄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소금값 폭등은 ‘가수요 탓’ “예약·유통체계 마련해야”

김영록 지사는 20일 “최근 소금값 폭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걱정이 큰 만큼 중간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본격 생산시기인 7월까지 예약판매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소금값 폭등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남이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주산지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재 생산자협회는 소금값 폭등 비난이 생산자에게 돌아올까 걱정하고, 수입소금이 늘지 않을까 우려하는 등 시름에 잠겨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소금값 폭등 원인으로 지금 당장 쓰지 않으면서 사가는 수요가 많은 점을 지적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소금 부족 불안’을 해소 위해선 “연업조합·생산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햇소금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7월까지 예약 판매제를 실시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소금값 폭등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 기자



시내버스 시스템 구축 협약식 강기정 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시내버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해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협력 협약식을 갖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다 “안전성·신뢰성·공공운수 운영 효율성 향상”

광주시가 신뢰성 있는 시내버스 운영과 교통사고 예방·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광주시는 20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 시장과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임동춘 광주시서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와 운영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과 데이터 지원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차량별 안전도를 알리고, 고장위험 예측과 위험공간 분석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대중교통의 신뢰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이 사업에는 국비 6억 원·시비 14억 원 등 2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 데이터 수집 단말기 제작과 장착,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과 예측시스템을 개발한다.

/권형안 기자

‘글로벌대학30’ 전남대·순천대 예비선정...탈락 대학 재도전

교육부, 실천계획서 심사 뒤 10개 대학 최종선정

5년동안 1000억원이 지원되는 ‘글로벌대학30’ 예비 선정에 광주와 전남지역은 각각 전남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이름을 올렸다.

예비 선정에서 탈락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학들은 내년 재도전 의사 밝혔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 예비 15개 대학에 광주는 전남대, 전남은 순천대가 각각 선정됐다.

교육부는 전남대와 순천대 등 예비 대학에 선정된 전국 15개 대학이 제

출한 혁신기획서를 토대로 2차 심사를 한 뒤 9월~10월 10개 대학을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 세계적 대학 육성을 목표로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 30개교를 선정해 2027년까지 5년 동안 각 대학에 1년에 200억원, 총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14개 대학이 A4 5쪽 분량에 ‘혁신안’을 담아 글로벌대학30에 도전했다.

전남대는 인문학분야 공동 교육과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광주시 오는 22~25일 당일 구매금액 30% 최대 2만 원

광주시는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소비자는 물론 수산업계의 불안감 확산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6월 특별전의 하나다.

행사에 참여한 광주지역 시장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말바우시장·월곡시장 등 3곳이다.

해당 시장을 이용한 소비자는 당일 국내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최대 2만 원)받는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때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때 2만 원이다. 시장별로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종료된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막대한 불안감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너도, 나도, 남도






남도여행길잡이

검색



